

# 『호구일록』과 『옹암지』를 통해 본 실기문학의 기록과 전승의 두 층위

---

신익철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교수, 한국한문학 전공

cloudway@aks.ac.kr

---

I. 1592년 평창 응암굴 전투의 서로 다른 실기

II. 『옹암지』의 편찬 경위와 저술 의도

III. 『옹암지』의 내용과 서사적 특징

IV. 『호구일록』과 『옹암지』의 전승 양상

---

## I . 1592년 평창 응암굴 전투의 서로 다른 실기

---

유몽인의 『어우야담』에는 임진왜란 관련 기사가 여러 편 실려 있으며, 그 중에는 왜군에게 사로잡혔다가 탈출에 성공한 평창 군수 권두문(權斗文, 1543~1617)에 관한 이야기가 보인다.<sup>1</sup> 이 기사는 아우와 함께 왜적에게 사로잡혔다가 탈출한 수사(水使) 이지(李芷)에 관한 이야기와 함께 기술되어 있다. 이 중 권두문에 관한 기록은 다음과 같다.

평창 군수(平昌郡守) 권두문(權斗文)은 임진왜란 때 왜병에게 사로잡혀 손발을 쇠사슬에 묶인 채 호적고(戶籍庫)에 갇혔다. 잠시 후 한 왜병이 나무궤짝 하나를 가지고 들어와 궤짝을 열어 권두문에게 보여주는데, 바로 사람의 머리였다. 왜 병이 말하기를, “이것은 원주 목사(原州牧使) 김제갑(金悌甲)의 머리로 곧 장군의 진영에 바쳐질 것이다. 내일 너도 장군의 진영에 도착하면 이처럼 될 것이다.”라고 하였다. 권두문은 더욱 두려워져서 밤새도록 쇠사슬을 벗겨 내려고 애썼는데, 손발이 온통 피투성이가 되고 나서야 쇠사슬이 끊어졌다. 드디어 호적책(戶籍冊)을 쌓아 높이가 지붕의 대들보에 달게 한 뒤 그것을 타고 올라가 천장을 뚫고 먼지투성이가 된 채 밖으로 나왔다. 담장 바깥에는 왜졸들이 호적을 베고 잠들어 있었다. 권두문은 아랫도리를 걷고 그들을 밟고 지나갔는데, 왜놈들이

---

1 유몽인은 1591년 겨울에 質正官으로 북경에 사행 갔다가 이듬해 4월 귀로에 압록강을 건너기 직전에 임진왜란 발발 소식을 접한다. 급히 귀국한 그는 5월에 凤山 行在所에서 復命하고, 1594년까지 왕세자로 책봉된 광해군을 수행하여 돌아다니면서 의병 봉기를 촉구했다. 이후 임진왜란이 종결되는 1598년까지 三道(충청도·전라도·경상도)巡按御史·咸境道巡撫御史·平安道巡邊御史를 역임하며 대전란의 참상을 생생히 목도하게 된다. 이러한 체험을 반영해 『어우야담』에는 대략 27편가량의 임진왜란 관련 기사가 보인다. 이는 ① 왜적에게 죽임을 당한 사람들 이야기, ② 왜적에 맞서 忠節을 지킨 이들에 대한 이야기, ③ 전란에 따른 가족의 이산과 재회에 관한 이야기, ④ 전란으로 인한 짙주림과 억울한 죽음으로 출현하는 귀신담의 네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깊은 잠에 들어 깨지 않았기에 무사히 그곳을 빠져나올 수 있었다.<sup>2</sup>

평창 군수 권두문이 왜병에 사로잡혀 호적고에 갇혔다가 원주 목사 김제갑(金悌甲)의 참수된 머리를 보고서는 두려움에 탈출했다는 줄거리다. 김제갑은 1592년 임진왜란이 일어났을 때 원주 목사로 있으면서 영원산성(鵠原山城)에서 왜적을 방어하다가 성이 함락되자 부인 이씨, 아들 김시백(金時伯)과 함께 순절했다. 권두문이 왜적에 생포되었다가 탈출한 사실 또한 이즈음 벌어진 일이었다. 왜군 진영에서 탈출한 사례가 흔치 않았기에 기이한 일로 널리 회자되었을 법하고, 이를 전해 들은 작자가 이러한 기록을 남겼을 것이다. 그런데 이 짧막한 이야기에는 권두문이 어떤 경위로 왜적의 포로가 되었으며, 어떻게 호적고를 빠져나와 왜병의 추격을 따돌리고 탈출에 성공했는지 등이 전혀 나와 있지 않다.

이에 관한 상세한 기록이 권두문의 문집 『남천집(南川集)』에 수록된 『호구일록(虎口日錄)』에 실려 있어, 그가 포로로 붙잡혔다가 탈출에 성공하기까지의 경위를 잘 알 수 있다. 『호구일록』은 임진년 3월 권두문이 평창 군수로 부임해서 4월에 임진왜란 소식을 접하고 나서 군민을 이끌고 정동(井洞)에 있는 험준한 굴에 들어가 왜적과 싸우게 된 경과를 말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왜병에 맞서 싸우다가 포로가 된 연유를 설명한 도입부라 하겠는데, 이 부분에는 날짜 없이 그 경과만 간략히 기술되어 있다. 이어서 8월 7일에서 9월 13일 까지 40여 일간 겪은 일을 매일 기록했는데, 일기의 주 내용인 이 부분은 세 단락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먼저 군민 수백 명과 함께 위아래 두 굴로 들어가 왜군에 맞서 싸우다가 포로가 되기까지의 일기이다. 이는 5일간의 기록이

2 유몽인(저), 신의철·이형대·조용희·노영미(역), 『어우야담』(파주: 돌베개, 2006), 71~72쪽, ‘왜전에서 탈출한 권두문과 이지’.

며 분량은 소략한 편이다. 다음은 8월 12일에서 9월 2일까지의 일기로 평창에서 영월, 제천, 원주로 이송되면서 포로로 지내다가 왜군의 진영에서 탈출하기까지 겪은 일을 기록한 것이다. 부상으로 인한 고통과 언제 처형당할지 모르는 두려움과 두 번의 자살 시도, 직접 목격한 왜군의 동태 등이 기술되어 있으며,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한다. 마지막은 탈출한 뒤 왜병의 추격을 피해 13일 영천(榮川) 본가에 도착할 때까지의 일기이다. 아들 주(駐)와 중방(中房) 고언영(高彦英)과 함께 왜군 진영에서 빠져나와 산간으로 도주하여 굶주림에 시달리다가 산골 피난민들의 도움으로 영천 고향으로 돌아가기까지의 일을 기록했다.

이러한 내용의 『호구일록』은 임진왜란의 체험을 기술한 실기문학 중 포로 실기(捕虜實記)에 해당한다. 임진왜란 포로실기로는 강항(姜沆)의 『간양록(看羊錄)』, 노인(魯認)의 『금계일록(錦溪日錄)』, 정호인(鄭好仁)의 『정유피란기(丁酉避亂記)』, 정경득(鄭慶得)의 『만사록(萬死錄)』, 정희득(鄭希得)의 『월봉해상록(月峰海上錄)』 등이 알려져 있다. 그런데 이 작품들이 모두 일본에 잡혀갔다가 귀국한 경험을 다루고 있는 것에 비해, 『호구일록』은 국내에서 포로로 불잡혔다가 탈출한 사실을 기술한 점에서 특이한 사례로 주목받았다.<sup>3</sup> 『호구일록』을 대상으로 한 본격적인 연구로는 최근에 두 편이 보고되었다. 한의승은 『호구일록』을 전쟁 포로로서 생사의 갈림길에 서 있던 한 인간의 고뇌와 두려움, 그 속에서 피어나는 가족애와 계급을 초월한 민중과의 연대가 생생하게 드러나는 작품으로 보았다.<sup>4</sup> 그리고 그 속에 담긴 충효(忠孝)의 정신

3 장경남, 「임란 실기의 문학적 특성 고찰」, 『승실어문』 11(1998). 장경남은 이 논문에서 임란 실기 21종을 소개하면서 『호구일록』을 언급했다(75~76쪽). 아울러 임진왜란 실기를 捕虜實記·從軍實記·避亂實記·扈從實記의 네 유형으로 분류하고, 그 문학적 특성을 고찰했다(77~81쪽).

4 한의승, 「남천 권두문의 『호구일록』을 통해 본 유파이념의 가족윤리 전유 양상과 의미」, 『영남학』 69(2019), 153~178쪽.

을 전쟁이라는 공통의 재난 속에서 유교 이념이 가족 윤리로 전유되어 작동된 것으로 해석했다. 이를 통해 국가와 개인, 계급과 성별, 혈연과 비혈연을 초월한 포용적·연대적 가족의 측면을 발견할 수 있다고 했다. 우영길은 임란 실기 중 충(忠)이 특히 강조된 것은 포로실기로서, 이를 작품에서 유리한 기억의 강화와 불리한 기억의 축소 등 기억의 굴절이 보이는 것은 포로 생활 중에 불충(不忠)을 저지르지 않았음을 내보이고자 했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그러면서 『호구일록』에서 자살 시도와 탈출 과정을 상술하고 있음은 충(忠) 이념을 묵시적으로 드러내기 위한 서술로 여타 포로실기와 구별되는 특징으로 보았다.<sup>5</sup>

『호구일록』은 ‘범의 아가리[虎口]’로 비유된 왜군 진영에서 포로로 붙잡혀 있다가 탈출해 돌아오기까지 겪은 일을 기록해 알리는 데 목적이 있었다. 포로로 지내다가 탈출해 돌아오기까지 겪은 극적인 체험과 자신과 아들 주(駐)의 충효 의식을 적극적으로 알리고자 함이 주된 저술 동기였다. 따라서 범의 아가리로 들어가기까지의 경과, 즉 의병을 조직해 응암굴에서 항전하다가 패배해 포로로 붙잡히기까지의 기록은 소략한 편이다. 평창 지역에서 의병이 누구의 주도로 어떻게 조직되었으며, 응암굴에서 왜군에 맞서 어떤 방식으로 싸웠는지에 관한 구체적인 서술을 찾아볼 수 없는 것이다.

그런데 권두문이 이끈 평창 응암굴 전투의 전모를 상세히 기록한 『응암지(鷹巖誌)』가 일본 교토대학 가와이문고[河合文庫]에 소장되어 있어 주목된다.<sup>6</sup> 제목의 ‘응암(鷹巖)’은 평창강 가에 위치한 정동(井洞)[샘골], 현재의 평창군

5 우영길, 「권두문의 『호구일록』에 나타난 忠 이념의 구현 양상」, 『동양고전연구』 87(2022), 66~99쪽.

6 이 외에도 국문으로 혼토한 『응암지』도 전하는데, 일부 사소한 표현을 제외하고는 내용은 한문본과 거의 일치한다. 이에 관해서는 다음 장에서 상술하겠다.

천동리)에 위치한 절개산<sup>7</sup>의 절벽 이름이다. 강가에 깎아지른 듯 솟아 있는 이 응암에는 위아래로 두 개의 천연 동굴이 있는데, 이곳을 요새 삼아 평창 군민 수백 명이 왜적에 맞서 싸운 것이다. 『응암지』에는 평창 군민들이 의병을 조직해 항전하다가 패전하기까지 전투의 전모가 소상히 기술되어 있다.

『호구일록』과 『응암지』는 둘 다 1592년 8월에 벌어진 평창 응암굴 전투를 배경으로 나온 실기문학이다. 하나의 사건을 배경으로 서로 다른 기록이 공존하는 것은 실기문학에서 특이한 사례다. 그런데 ‘호구(虎口)’와 ‘응암(鷹巖)’이라는 상이한 제목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그 서사적 지향은 전혀 다르다. 『호구일록』이 왜군의 진영에 불잡혀 있다가 탈출에 성공해 돌아오기까지의 과정이 기록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데 비해, 『응암지』는 의병을 조직하기까지의 경과와 응암굴을 거점으로 왜군과 싸운 치열한 전투 장면 등이 서술의 대부분을 차지하며 그 내용 또한 상세히 기록되어 있다.

이 글은 동일한 역사 사실에서 유래한 실기가 이처럼 전혀 다른 면모를 지니고 있는 데에 대한 궁금증에서 출발했다. 이에 두 실기의 창작 배경과 저술 의도 등을 비교해 살펴보고자 한다. 『호구일록』은 선행 연구에서 이미 다룬 바 있기에 여기에서는 신자료인 『응암지』를 중심으로 논의하기로 한다. 이 글의 논의 순서는 다음과 같다. 먼저 『호구일록』과 『응암지』의 선후 관계와 창작 배경을 살펴보기로 한다. 이 과정에서 『응암지』의 작자와 저술 의도가 구체적으로 밝혀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다음으로는 『응암지』의 대략적인 내용을 소개하면서 그 서사적 특징을 살펴보기로 하겠다. 이때 『호구일록』에 없는 『응암지』의 내용과 두 기록에서 서로 차이를 보이는 대목을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하기로 한다. 이 과정에서 당시 막강한 왜군에 맞서 싸운

---

7 節介山이라는 이름 또한 평창 군수 권두문의 소설 姜召史가 왜군에게 생포당하자, 응암 절벽에서 뛰어내려 절개를 지킨 데서 유래한 것이다.

평창 군민들의 용기와 희생, 그리고 충절(忠節) 정신 등이 새롭게 조명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후대의 관련 자료를 함께 살펴봄으로써 응암굴 전투에 대한 기억 전승 방식의 일단도 살펴보기로 하겠다.

## II. 『응암지』의 편찬 경위와 저술 의도

일본 교토대학 가와이문고에 소장된 『응암지』(필사본, 1책 22장)는 고려대학교 해외한국학자료센터에서 수집해 알려진 자료이다. 『응암지』는 응암굴 지형의 혐난함에 대한 설명부터 시작해서 군수 권두문이 군민을 이끌고 이곳에서 왜군에 맞서 싸우다가 패전해서 포로로 붙잡히기까지의 과정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이처럼 응암굴 전투의 시발을 기록하고 나서, 마지막에 원주읍으로 이송된 권두문이 탈출해 본 군으로 돌아와 전투의 경과를 적은 소장을 행재소에 올리고 고향 영천으로 돌아갔으며, 후에 간성(杆城) 군수를 지냈다는 후일담을 덧붙이는 것으로 끝맺는다.<sup>8</sup>

이처럼 서사를 완결지은 다음에 세 칸 정도 띄우고 나서, 맨 마지막에 『응암지』의 저술 경위와 제목의 ‘응암(鷹巖)’이라는 명칭의 유래를 밝히는 말을 넣 줄가량 덧붙였다. 『응암지』의 저술 의도를 분명히 드리내 주는 이 대목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본 군의 지인(知印) 정허춘(鄭虛春)은 환난을 함께 겪었기에 그 당시의 사실을 하나하나 기록하고 평생토록 이야기해서 시골 마을에서 입으로 널리 전해지도

8 『鷹巖誌』, 36卷, “移遷原州邑 誘之萬端 終不肯服 脫身逃歸本郡。以戰亡之由·斬馘之數 署陳疏  
上于行在, 因解印辭職 轉向榮川故里。後爲杆城郡守”。여기에 밝힌 『응암지』의 쪽수는 필자  
가 매긴 것으로 이하 마찬가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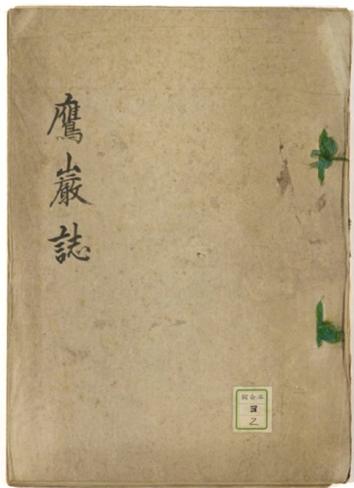


그림1-『응암지』 표지

록 하였다. 훗날 사람들이 그 바위를 이름하여 ‘응암(鷹巖)’이라 불렀다. [지대성(智大成) 군이 매를 날려 보냈기 때문이다. 당시의 유적은 본 군의 고적(古蹟)과 본초(本草) 및 읍지(邑誌)와 권남천(權南川)의 가장일록(家莊日錄)에 대략 실려 있다.]<sup>9</sup>

평창군의 지인 정허춘(鄭虛春)이 응암굴 전투에 동참했기에 당시 있었던 일을 빠짐없이 기록해서 고을 사람들에게 전해지도록 했다는 것이다. 지인(知印)은 지방 수령을 측근에서 수행하는 통인(通引)을 달리 일컫는 칭호인 바, 정허춘은 아마도 평창 출신 아전충의 짚은이였을 것으로 짐작된다. 정허춘이 당시 겪은 일을 하나하나 기록했다고 하지만, 과연 지방 관청에서 도장을 관리하거나 잔심부름을 하는 나이 어린 통인이 한문으로 이러한 기록을 남길 만한 학식과 문장력을 지녔을까 하는 의문이 든다. 아울러 저술 동기를

9 『鷹巖誌』, 37쪽, “本郡知印鄭虛春. 同經患難 故其時事實 歷歷記錄 終身說道 傳播於村巷口碑. 後之人名其巖 曰鷹巖. [智君大成放鷹之故也. 其時遺蹟 畧載于本郡古蹟·本草及邑誌與權南川家莊日錄].”

밝힌 이 대목에서 정허준이 자신을 객체화하여 “지인 정허준이 … 전해지도 록 하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어색하게 느껴지기도 한다.

『옹암지』에는 정허준의 이름이 두 군데 더 등장하는데, 여기에서도 이름만 거론될 뿐 구체적인 행동이 서술되거나 사건에 관여하는 것으로 그려지지는 않았다. 먼저 권두문이 왜군의 침략 소식을 듣고 평창 관아를 떠나 동촌(東村)으로 피신할 때 데리고 간 권속(眷屬)의 이름을 나열하는데 그중 한 사람으로 나온다. 그리고 우윤선(禹胤善)이 권두문에게 창의(倡義)에 동참한 27인의 장기를 말하는 장면에서도 정허준이 등장한다.<sup>10</sup> 우윤선은 정허준의 재주에 대해 “바닷물을 기울이고 강물을 뒤집을 만큼 능수능란하게 말씀씨가 뛰어나다[倒海翻江 噫咤利口之辯].”고 한다. 정허준이 영리하며 뛰어난 말씀씨를 지니고 군수를 수행했던 통인임을 알게 해 준다.

“훗날 사람들이 그 바위를 이름하여 ‘옹암(鷹巖)’이라 불렀다.”라고 한 마지막 문장은 제목을 ‘옹암지’라고 한 이유를 밝힌 것이다. 그러면서 주석에서 지대성(智大成)이 기르던 매를 날려 보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sup>11</sup> 이 주석에서 유의해야 할 것은 평창군의 기록 외에 권남천(權南川)의 『가장일록(家莊日錄)』에 그 사적이 실려 있다고 한 점이다. 여기에서 말한 『가장일록』이란 권두문 집안에 전해지는 일기를 말하니, 다름 아닌 『호구일록(虎口日錄)』을 칭함이 분명하다.<sup>12</sup> 권두문 집안에 소장된 일록(日錄)에 당시 사적이 실려 있

10 『鷹巖誌』, 4~11쪽, “乙亥 率子駐及副室姜召史·衙奴彥伊·希壽·千守·婢彥真·李代·婢夫林孫·中房高彥英·知印鄭虛春·趙虛泰等十餘人 先入東村 … 公(權斗文을 말함)曰 雖得天塹之險 顧此諸人生長昇平之世 不習戰武之技 則其如何哉? 禹胤善進曰 吾輩雖單 各盡其能 足當一隅 兩勿爲過慮. 公笑曰 誠如君言 弟言其才. 胤善曰 … 知印鄭春 倒海翻江 噫咤利口之辯”. 여기에서 ‘知印鄭春’은 문맥상 앞에 나온 ‘知印鄭虛春’을 가리킨다. 『옹암지』 외에도 鄭虛春이 鄭春으로 표기된 경우가 간혹 보이는데, 양자가 동일 인물임은 분명하다.

11 『鷹巖誌』, 22~23쪽, “智大成曾有畜膺一坐 坐峙於巖上 以示誇矜之色. 賊望見呼之曰 願得君膺子 大成大言曰 寧爲放之 豈可與之? 仍割繫放之 以激怒倭賊”.

12 『호구일록』에는 권두문이 포로로 있으면서 접한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빠짐 없이 기록되

다고 한 것으로 보면, 『옹암지』의 작자는 『호구일록』의 내용을 잘 알고 있음이 틀림없다고 할 것이다.<sup>13</sup> 그런데 위 인용문의 주석에서 작자는 의병의 중심인물 중 하나인 지대성을 ‘지군대성(智君大成)’이라 부르고, 군수 권두문에 대해서도 ‘권남천(權南川)’으로 칭하고 있다. 나이 어린 통인이 고을 어른<sup>14</sup>을 ‘군’이라 일컫고 있거나, 자신이 모셨던 군수에 대해 ‘남천(南川)’이라는 호로만 칭하는 것은<sup>15</sup> 이해하기 힘든 표현이다. 그렇다면 과연 『옹암지』의 작자는 누구로 보아야 할 것인가?

이러한 의문에 대한 해답을 평창 단양우씨(丹陽禹氏) 가(家)에 소장된 고문서에서 찾을 수 있다. 평창에 거주하는 단양우씨 가에서는 응암굴 전투에서 전사한 우옹민(禹應民, 禹應潛으로도 표기됨)의 충의와 공훈에 대한 표창을 요구하는 문서를 여러 차례 올린다. 그중 나영조(羅英祚) 등의 상서(上書)에서 우옹민의 공훈을 기술하고 나서, “그 당시 소동(小童) 정춘(鄭春)이 그 일을 직접 목격하였는데, 당시 군수 이문주(李文柱) 씨가 그 사실을 찬술하여 지금 까지도 초동목수의 입에서 입으로 전파되고 있다.”<sup>16</sup>라고 했다. 또 이어서 “근래 권성주(權城主, 권두문)의 집을 통해 비로소 임진년의 일기가 전해짐을 알

---

어 있고, 자신이 겪은 일이 매우 사실적으로 상세히 묘사된 점으로 보아 왜군 진영에 불잡혀 있을 때부터 기록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아마도 탈출하여 고향집으로 돌아온 뒤, 오래 지 않아 초고를 손질해 일기를 완성했을 것으로 추측된다.

13 여기에서 ‘家莊日錄’이라 칭한 것으로 미루어 보면, 작자는 1617년 권두문의 사망 이후에 후손이 소장하고 있는 『호구일록』을 접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된다.

14 『옹암지』에는 우운선이 창의에 동참한 이들의 재주를 말하는 대목이 있는데, “奉事公 智士涵·將仕郎 李仁恕·出身 禹應民·座首 羅壽千·智大成·智大明·李蘊忠·別監 李敬祖·智大用·鄉所 羅士彥·智大忠·金成慶….”(10~12쪽)라고 하여, 지사함을 필두로 27인을 열거한다. 여기에서 지대성은 ‘座首 羅壽千’과 나란히 거명되어, 유향소의 가장 높은 직임인 좌수와 비슷한 연배의 인사였을 것으로 짐작된다.

15 ‘公’ 같은 존대어를 붙여 ‘權南川公’이라 함이 어울리는 칭호로 생각된다.

16 「甲申年 羅英祚 等 上書」, “其時 小童鄭春 目擊其事 當時李郡守文柱氏 撰其實 而至今傳播于樵童牧豎之口碑矣”.

게 되었는데 그때의 일이 대략 실려 있다. 또 읍지(邑誌)의 고적(古蹟)을 살펴보니 그 실상이 상세히 갖추어져 있으니, 읍적(邑蹟)은 곧 이군수(李郡守)가 편찬한 것이다.”<sup>17</sup>라고 하며, 평창 군수 이문주(1599~1662)가 읍지를 편찬하면서 고적 조에서 응암굴 전투에 대해 상세히 서술했다고 재차 언급한다. 이를 통해 우리는 지인(知印) 정허춘(鄭虛春, ‘鄭春’으로도 표기됨)이 목격한 사실을 훗날 평창 군수로 부임한 이문주가 읍지를 편찬하면서 상세히 기록으로 남겼음을 알 수 있다.<sup>18</sup> 그렇다면 현재 ‘응암지(鷹巖誌)’라는 제목으로 별도의 필사본이 전해지는 것은 어떻게 보아야 할까? 이는 아마도 응암굴 전투에 참가했던 의병의 후손가에서 당시 세운 공훈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 읍지의 내용과 구비로 전승되는 이야기 등을 문학적으로 윤식해 만든 것이 아닌가 추정된다. 따라서 『응암지』는 ‘정허춘의 구술→이문주의 기록→후손가의 윤색’의 3단계를 거쳐 생성된 것이 아닌가 짐작된다.

한편 교토대학 소장본과 전혀 다른 『응암지』의 한글현토본이 따로 전해지기도 한다. 한문 필사본과 달리 한글로 현토하여 정서한 이 책은 목판본을 본 뜯 양식에 세로줄 친 용지에 인쇄한 것이다. 그 지질과 양식으로 보아 아마도 20세기 초 석판으로 인쇄한 석인본(石印本)으로 여겨진다. 한글현토본을 한문본과 비교해 보면 한문 문리에 어긋나는 어색한 표현이 일부 발견되고 오자가 보이기도 한다. 예컨대 『응암지』 첫머리에서 임진왜란이 발발해 팔도에 왜적들이 나누어 침략해서 강원도로 쳐들어오는 대목을 보면, 한문본에서는

17 「甲申年 羅英祚 等 上書」, “近因權城主家 始傳壬辰日記 而其事略載. 又考邑誌古蹟 而其實詳備 邑蹟卽李郡守撰集者也”.

18 이문주는 1652년(효종 3) 봉산 현감이 되어 조세의 폐단을 시정하고, 이후 평창 군수, 정선 군수, 안악 군수 등을 지낸 뒤 관직에서 물러났다. 그리고 1656년 전 군수 이문주가 임금이 두렵게 여겨야 할 일에 대해 상소하여 포상을 받았다는 기록이 『효종실록』(7년 11월 23일)에 보이기도 한다. 이로 미루어 볼 때 이문주가 평창 군지에 관련 기록을 남긴 것은 1653년에서 1655년 즈음의 일로 여겨진다.

“分道入寇 副將豐臣吉成 率一枝兵 浮海而出 先犯嶺東 嶺東列邑風靡 民莫敢格者.”라고 한 구절이 한글현토본에는 “分道入寇할새 副將豐臣이咸率渡兵하고 浮海而出하야 先犯嶺東하니 嶺東列邑이 風靡하야 民莫敢格者러라.”라고 되어 있다. 여기에서 강원도 지역으로 파견된 왜군 장수는 풍신길성(豐臣吉成)이었기에,<sup>19</sup> 밑줄 친 부분은 “부장 풍신길성이 그 병력 한 갈래를 거느리고”라고 한 한문본이 옳다. 그런데 한글현토본에서는 이를 “부장풍신(副將豐臣)이 함솔도병(咸率渡兵)하고”라고 하여, 그 의미를 곡해했다. 한글현토본에는 이런 식으로 한문본을 오독한 경우가 간혹 있고 여러 군데에서 오자가 보이기도 하지만, 그 내용은 거의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다만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맨 마지막에 덧붙인 『옹암지』의 저작 동기를 밝힌 부분이 한글현토본에는 빠져 있다.

한글현토본은 한문본의 내용을 이해하기 힘든 일반 대중에게 응암굴 전투의 전모를 널리 알리기 위해 간행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언제 누구에 의해 간행되었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전언에 따르면 응암굴 전투에 참여했던 후손가에서 발행한 것이라고 한다.<sup>20</sup> 한편 1979년에 간행된 『평창군지』에는 2장 고사(故事) 부분의 14항에 ‘옹암굴(鷹岩窟)의 전투(戰鬪)’라는 제목으

19 한치윤은 『海東繹史』에 “임진년 1월에 平秀吉이 여덟 장수를 나누어 파견하여 조선의 팔도를 침공하였다. 豊臣輝元은 경상도, 豊臣景隆은 전라도, 豊臣家政은 충청도, 豊臣勝隆과 豊臣元親은 경기로 보냈다. 도성 안에 주둔해 진압한 자는 豊臣秀家이다. 豊臣吉成은 강원도, 豊臣家治는 황해도, 豊臣淸正은 영안도, 豊臣行長과 豊臣義智는 평안도로 나누어 보냈다.”(권61 本朝備禦考「馭倭始末」)라고 했다. 권두문 또한 『호구일록』(8월 9일 기사)에서 “倭將豐臣吉成自稱江原監司 所經之邑 必先文山谷愚氓 魏然從之 可痛也.”라고 했다.

20 필자는 한글현토본 『옹암지』의 존재를 ‘청산’이라는 아이디의 인터넷 블로그에서 처음 접했다. 이후 평창학연구소의 이경식 선생과 연락해 소장자인 조연형 선생을 만나 보고 한부를 얻어 볼 수 있었다. 이 자리를 빌려 두 분의 호의에 감사를 표한다. 이 책을 제공한 조연형 선생의 말에 따르면, 응암굴 전투에 참여했던 후손가에서 발행한 것인데, 누가 혼동하고 정서했는지는 알지 못한다고 했다.



그림2-한글현토본『응암지』의 첫 면



그림3-한문본『응암지』의 첫 면

로 응암굴 전투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하고, 추기(追記)를 통해 당시의 역사를 밝혀 주는 『응암지(鷹岩誌)』가 전하고 있다고 했다. 여기에서 언급한 『응암지』는 아마도 한글현토본을 말하는 것으로 보이며, 평창문화원에서 1998년에 발행한 『노성(魯城)의 맥(脈)』 13집에 번역하여 소개한 『응암지(鷹岩誌)』 또한 한문본이 아닌 한글현토본을 저본으로 하여 번역한 것으로 추정된다.

응암굴은 이전에는 매화굴(梅花窟)이라 불리다가 임진왜란 전투 이후에 응암굴로 이름이 바뀌게 되었다고 한다. ‘응암(鷹巖)’이라는 명칭은 약 200미터 간격으로 있는 두 개의 굴의 연락을 위해 매의 발목에 서신을 매달아 교환한 데서 연유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두 개의 굴 중 위의 굴에 권두문 군수 일행이 피신했고 아래 굴은 군민들이 피신했기에, 훗날 사람들이 위의 굴을 관굴(官窟)이라 하고 아래 굴은 민굴(民窟)이라 불렀다고도 한다.<sup>21</sup>

21 권선정·김기혁·김용상·김정인·박경호·박승규·성효현·손승호·손용택·신종원·심보경·양보경·옥한석·이기봉·이영희·전종한·정암·정부매·조영국(저), 국토지리연구원(편), 『한국지명유래집 중부편』(서울: 진한엠엔비, 2015); 〈응암굴[鷹岩窟]〉, 2008. 네이

### III. 『옹암지』의 내용과 서사적 특징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옹암지』는 한문본과 한글현토본 두 종이 전하는데, 이 중 한문본이 원본으로 오류 또한 적은 편이다. 한문본은 1면에 10행씩 필사되어 있고, 매 행은 22자가량이 정서되어 있다. 표지를 포함해 총 22장으로 본문은 37면에 걸쳐 기술되어 있다. 이를 환산하면 본문의 글자 수는 대략 8,000여 자를 상회하는 바, 적지 않은 분량이라 하겠다. 여기에서는 한문본을 대상으로 그 내용을 서사 전개에 따라 임의로 ‘창의(唱義)’·‘항전(抗戰)’·‘패전(敗戰)과 절의(節義)’의 세 단락으로 나누어 살펴보겠다. 그동안 알려지지 않은 자료이기에 이하 각 단락의 주요 내용을 요약해 소개하고, 내용과 표현상의 특징적 면모에 대해 간략히 언급하기로 한다.

#### 1. 창의

‘창의(唱義)’(1면 2행~16면 4행)는 풍산길성(豊臣吉成) 휘하의 왜병이 강원도 지방을 공격해 오자 군수 권두문(權斗文)이 군민과 함께 항전할 것을 결의하고 의병을 조직하는 내용이다.

『옹암지』의 첫머리는 “노성(魯城, 平昌의 별호이다.) 남쪽 정동(井洞) 아래편에 깎아지른 푸른 절벽이 수어 리에 걸쳐 우뚝 솟아 있다. 좌우로 암대(巖臺)가 마주하고 위아래로 석굴이 있으며 산을 등지고 강물을 앞에 두고 있어 그 형세가 허공 중에 떠 있는 듯하니, 이른바 한 사람이 관문을 막아 지키면 만

---

버 지식백과,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765757&cid=43740&categoryId=44178>. 그런데 ‘鷹巖’이라는 명칭의 유래에 대해 『옹암지』에서는 앞에서 본 것처럼 智大成이 매를 날려 보낸 데서 연유한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옹암지』에는 官窟과 民窟이라는 말은 등장하지 않고, 그저 上窟과 下窟로 칭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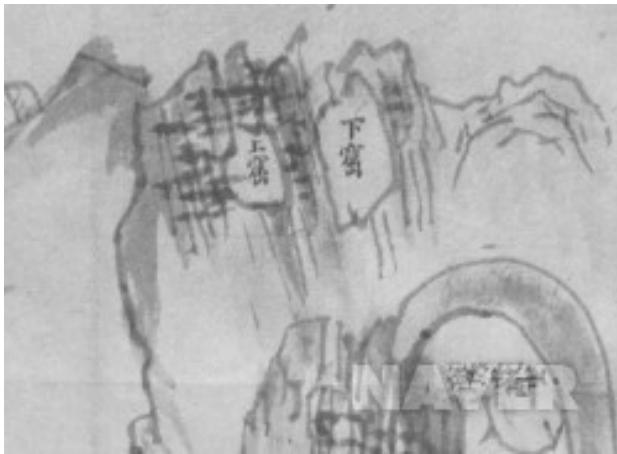


그림4-〈1872년지방지도(평창군오면지도)〉의 응암굴(상굴 및 하굴) 일대<sup>23</sup>

명도 빼앗지 못할 곳이다.”<sup>22</sup>라고 하여, 응암굴이 천혜의 험지임을 서술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이어서 의병이 결성되어 응암굴에 들어가까지의 경과를 대략 다음과 같이 서술했다.

왜적의 침략 소식을 접한 본군 태수 권두문은 경성으로 올라가 임금을 호종할 생각을 밝히고, 아들 주(駐)에게 서모(庶母)를 모시고 고향 영천(榮川)으로 돌아가 가족을 책임지라고 당부한다. 다음 날 출발할 즈음에 고을의 부로(父老) 수십 여인이 길을 막고 태수가 떠나가면 고을은 누가 지키냐고 하면서 지형이 험한 동촌(東村)에 피해 있다가 형세를 보아 왜적과 싸울 것을 권유한다. 이에 권두문은 권속 10여 명, 음민 20여 명을 데리고 동촌으로 간다. 이 때 전 훈련원(訓鍊院) 봉사(奉事) 지사함(智士涵)과 출신(出身) 우응민(禹應民)

22 『鷹巖誌』, 1卒, “魯城[平昌別號]南井洞之下 有蒼壁焉 橫截數里 削立千尺。左右巖臺 上下石窟 背山臨水 勢若憑虛 其所謂一夫當關萬夫莫開之地也”。

23 〈1872년지방지도(평창군오면지도)〉의 응암굴(상굴 및 하굴) 일대, 네이버 지식백과,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765757&cid=43740&categoryId=44178>.

이 의병을 일으켜 항전하기로 뜻을 모으고, 동촌으로 가서 권두문에게 동참할 것을 권한다. 이 자리에서 지사함은 오늘날 시사(時事)는 통곡(痛哭)·유체(流涕)·한심(寒心)·태식(太息)할 일이 많다고 하면서 창의(唱義)의 정당성을 역설한다. 권두문이 그 뜻에 동의해 평창 관아로 돌아와 왜적과 싸울 뜻을 밝히자, 읍내의 유생들이 합류한다. 권두문이 의병에 참여한 이들의 재주를 말해 보라고 하자, 우윤선(禹胤善)이 의병에 자원한 27인의 재주를 하나하나 말한다. 이에 군내 고을에 의병이 조직되었음을 알리고 함께할 사람을 모집해 수백 인을 얻어, 부대를 편성하고 군율을 반포한다.

‘창의’는 왜적의 침략 소식을 접한 평창 군민이 의병을 조직하고 응암굴에 들어가 항전 준비를 하기까지의 기록인데, 『호구일록』에는 보이지 않는 내용이 많이 들어 있다. 군수 권두문이 서울로 올라가 선조 임금을 호종할 생각이었다가 평창 부로들의 말을 듣고 의병에 참여하기까지의 경위나 지사함과 우응민이 처음 창의를 결심하고 권두문에게 권유하여 의병이 조직되는 과정 등이 『호구일록』에는 빠져 있는 것이다. 이 중에서 지사함이 시사(時事)가 통곡(痛哭)·유체(流涕)·한심(寒心)·태식(太息)할 일이 많다고 하면서 창의의 당위성을 역설하는 대목은 비장감으로 충만해 있다. 아울러 우윤선이 권두문에게 창의에 동참한 사람들의 재주를 하나하나 말하는 대목은 문학적 윤식이 가해져 있기도 하다. 우윤선은 “봉사공(奉事公) 지사함(智士涵), 장사랑(將仕郎) 이군인서(李君仁恕), 출신(出身) 우응민(禹應民)” 하는식으로 창의에 동참한 사람들의 직함과 성명을 소개하며, 아들이 각기 지난 재주를 언급한다. 그 이름을 거론하고 있는 이는 앞의 3인 외에 좌수(座首) 나수천(羅壽千)·지군대성(智君大成)·지군대명(智君大明)·이군신충(李君蘆忠)·별감(別監)·이경조(李敬祖)·지군대용(智君大用)·향소(鄉所) 나사언(羅士彦)·지군대충(智君大忠)·김군성경(金君成慶)·충주(忠州) 최업(崔業)·중방(中房) 고언영(高彦

英) · 지인(知印) 정춘(鄭春)<sup>24</sup> · 군관(軍官) 박취영(朴取影) · 초관(哨官) 박상영(朴像影) · 호장(戶長) 이응수(李膺壽) · 이방(吏房) 이순희(李順希) · 병방(兵房) 이난수(李蘭秀) · 예방(禮房) 손수업(孫守業) · 전호장(前戶長) 박수천(朴守千) · 전병방(前兵房) 이득춘(李得春) · 전예방(前禮房) 김성모(金聲模) · 퇴리(退吏) 이미수(李眉壽) · 가리(假吏) 이신(李信) · 이전(李鷗)으로 모두 27인이 된다.<sup>25</sup> 그리고 “나머지 노복과 사령들도 모두 한 가지 재능을 지니고 있는바, 형세에 따라 적을 제압함에 무슨 어려움이 있겠느냐?”고 하자, 권두문이 미소를 지으며 “그렇다면 그대의 장기는 무엇이냐?”라고 물었고, 이에 지사함이 “맨손으로 호랑이를 때려잡고 황하를 맨발로 건너며 죽더라고 후회함이 없는 것 이 나의 강점입니다.”<sup>26</sup>라고 답해 좌중이 모두 웃음을 터뜨리는 장면으로 마무리된다.

여기에서 창의한 이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훈련원(訓鍊院) 봉사(奉事, 종8품)를 지낸 지사함을 필두로 장사랑(將仕郎, 종9품의 위호) 이인서와 출신(出身) 우옹민, 유향소(留鄉所)의 좌수(座首), 별감(別監) 등과 유향소에 속한 이들의 성명이 먼저 호명되고 있다. 이어서 중방(中房), 지인(知印), 군관(軍官), 초관(哨官), 호장(戶長), 이방(吏房), 병방(兵房), 예방(禮房) 등에 이어 전임자 까지 향리총의 성명이 나열되어 있다. 성씨로는 이인서 · 이신충 · 이경조 · 이응수 · 이순희 · 이난수 · 이득춘 · 이미수 · 이신 · 이전 등의 이씨가 가장 많이 보

24 앞에서 말한 것처럼 鄭虛春의 오기로 보인다.

25 평창군 문화공보실(편), 『평창군지』(서울: 삼화출판사, 1979)에는 응암굴 전투와 관련된 기록이 두 군데에서 언급된다. 2장 「故事」 14항에서 '鷹岩窟의 戰鬪'라는 제목으로 응암굴 전투에 대해 간략하게 기술하고, 당시의 역사를 밝혀 주는 『鷹岩誌』가 전한다고 했다 (459~460쪽). 11편 「人物」에는 智士澠·羅壽千·禹應民·李仁恕 4인이 임진왜란 때 응암굴 전투에서 순절한 사실을 한문으로 기술하고, 각기 兵判·兵使·兵參·承旨에 추증된 것으로 기록했다(670쪽).

26 『鷹巖誌』, 12쪽, “餘他奴令 皆有一能 則隨機制敵 何難之有? 公微哂曰 然則 於君何有? 對曰 暴虎馮河 死而無悔 吾之強也”.

이는데, 이들 중 상당수는 평창 지역이 집성촌인 평창이씨(平昌李氏)로 짐작된다. 지사함·지대성·지대명·지대용·지대충 등의 지씨도 많이 보이는데, 이들 또한 평창의 유력 성씨인 봉산지씨(鳳山智氏)로 보인다. 이 중 지사함은 가장 먼저 창의를 주창하는 인물로 “평창군에 거주하는 지사함 공은 고려조의 명신 정현공(貞憲公) 채문(蔡文)의 후손이다. 지략이 출중하고 지모가 뛰어나 독서하는 여가에 무예를 함께 익혔는데, 무과에 먼저 올라 처음에 훈련원 봉사를 지냈다.”<sup>27</sup>라고 하여, 문무를 겸비하고 지략이 뛰어난 인물로 평소 자제들에게 충의(忠義)를 강조한 것으로 소개되었다. 지사함은 의병 결성을 주도하고 군수 권두문의 동참을 이끌어 내며, 이후 의병 전군을 통솔하는 대장으로 왜적과 싸우다가 장렬히 전사하는 것으로 그려진다. 『옹암지』의 서두부터 결말에 이르기까지 서사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지사함은 『옹암지』에서 가장 비중 있게 서술되는 인물이다.

우윤선은 “봉사공(奉事公) 지사함(智士涵)은 문무를 겸비해 치세와 난세에 재상과 장군을 할 재주이며, 장사랑(將仕郎) 이인서(李仁恕) 군은 가만히 앉아 계략을 세움에 천 리 너머의 전투를 승리로 결판내고, 출신(出身) 우응민(禹應民)은 용기와 지략이 출중해서 만부(萬夫)의 우두머리가 되기에 충분하다.”<sup>28</sup>는 식으로 의병에 자원한 27인의 재주를 4, 6자의 대구로 하나하나 대비해 말하고 있다. 이 대목은 문학적 윤색이 다분해 실사가 아닌 허구적 대목으로 읽히기도 한다.

---

27 『鷹巖誌』, 5쪽, “郡居智公士涵 乃是麗朝名臣貞憲[蔡文]之後也。壯畧超等 智謀過人 讀書之暇 兼習弓馬之才 先登武科 初調訓鍊院奉事”。

28 『鷹巖誌』, 10쪽, “奉事公智士涵 經文緯武 治亂將相之材 將仕郎李君仁恕 運籌帷幄 決勝千里之手 出身禹應民 勇略超等 快是萬夫之長”。

## 2. 항전

‘항전(抗戰)’(16면 4행~30면 7행)은 응암굴을 거점으로 왜군에 맞서 싸우는 내용으로 『호구일록』과 달리 전투 모습이 상세히 그려져 있다.

이튿날 고덕치(高德峙), 약수평(藥水坪), 조파역(潮派驛) 등지에 군사를 배치하고 응암굴 주변에 무기와 군량을 비치해 적군의 침입에 대비한다. 권두문이 부실(副室) 강소사(姜召史)에게 동촌으로 피신하라고 하자, 강소사는 거절하고 죽음을 함께 하겠다고 말한다. 중방(中房) 고언영이 적의 형세가 강하고 우리 군사와 군량이 부족하니 깊은 산중에 숨었다가 기회를 봐 싸우자고 하자, 이인서와 우옹민 및 여러 군관들이 반대하고 싸우기를 결의한다. 며칠 뒤 왜적이 군에 이르러 경내가 텅 빈 것을 보고 백전산(栢田山) 아래 진을 치고 머문다. 권두문이 지사함 등 100여 명을 적진에 보내 잠복해 있다가 몰래 활을 쏘도록 하고, 이튿날 적군이 조파역(朝波驛)으로 진을 옮김에 한밤중에 전후좌우에서 협공해서 왜병 일부를 사살하고 적진을 혼란에 빠뜨린다. 다음 날 왜병 대군이 결집해 주변 일대를 수색하다가 사천(蛇川) 건너편 나루에 배가 있고 부제(浮梯)가 늘어져 있는 것을 보고 강을 건너 정탐한다. 이때 지대성이 대(臺) 위에서 편전(片箭)을 쏘아 적의 옷자락을 맞추고, 기르던 매를 날려 보내 왜병의 화를 돋운다.

이튿날 적군이 병력을 결집해 건너편 백사장에 진군해 와 포를 쏘며 겁을 주자, 권두문이 군대를 나누어 배치하고 작전 지시를 내린다. 이후 몇 차례 격렬한 전투가 벌어져 지사함과 우옹민이 암대(岩臺) 아래로 내려가 왜적과 싸워 여러 왜병을 죽이고 전사하며, 이들을 구하러 갔던 이인서와 지대충도 함께 죽는다. 기세가 오른 왜군이 응암굴 입구로 돌진해 와 외대(外臺)에서 적군과 싸우던 의병들이 패하자 하굴(下窟)에 있던 군민 수백 명이 손이 묶인 채 생포되어 끌려 나왔다.

옹암굴을 거점으로 왜군에 맞서 싸우는 이 부분은 『옹암지』에서 가장 흥미로운 내용으로 전투 장면이 상세하게 서술되어 있다. 그중에서도 지사함과 우옹민이 적진에 뛰어들어 싸우다가 포위되어 전사하고, 이를 구원하러 갔던 이인서와 지대충도 함께 전사하는 대목은 마치 곁에서 눈으로 지켜본 듯 세밀하게 묘사되어 있다. 이 중 지사함이 우옹민과 함께 적진에 뛰어들어 싸우다가 먼저 전사하는 장면은 다음과 같이 그려지고 있다.

이날 밤 삼경에 봉사(奉事, 지사함)가 우옹민과 함께 은밀히 옹암 아래로 내려가 적군과 더불어 다시 싸웠는데, 거의 십여 합을 겨루다가 포위당해 빠져나올 수가 없었다. 우옹민을 돌아보며 말하기를 “우리들이 무예를 익힌 지 10년에 이 날이 있게 된바, 나라를 위해 절의를 다할 때로다.”라 하고는, 긴 창을 다시 부여잡고 좌우로 휘두를 즈음 적의 총탄에 맞아 창이 부러지고 맨몸으로 다른 병기 가 없었다. 이에 맨주먹을 휘두르며 적의 칼날에 맞서며 창칼이 가득한 적진 사 이를 짓밟으며 화살과 돌멩이가 난무하는 가운데 횡행하여 곁에 아무도 없는 듯 거침없이 돌진하니, 적군이 물러서며 탄식을 멈추지 않았다. 얼마 뒤 동녘이 훤히 밝아짐에 철기병이 나란히 달려와 조총을 어지러이 쏘아대니, 비록 많은 사람을 대적하는 용맹함이 있으나 만부(萬夫)를 어찌 당해 낼 수 있겠는가. 아! 황천이 돌보지 않으니, 저양성(睢陽城)에서 장순(張巡)이 패배함<sup>29</sup>과 준계산(浚稽山)에서 전사한 한연년(韓延年)<sup>30</sup>과 같이 됨을 어찌 면할 수 있으리오. 마침내 막

29 안녹산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 張巡이 저양성을 몇 달 동안 사수하고 있었다. 그런데 구원 병이 오지 않아 양식이 다 떨어지고 힘도 다 소진되어 성이 함락되게 되자, 太守로 있던 허원과 함께 死節했다.

30 한 무제의 명을 받아 李陵이 보병 5,000명을 거느리고 출병하여 浚稽山에 이르러 單于를 만나 3만가량의 기병에 포위되었다. 이릉의 군대가 흉노 수천 명을 죽이자 선우가 놀라 8만여 명으로 공격했다. 이릉 군대가 수일을 싸우며 수천 명의 적군을 죽였으나 화살이 다 떨어지고 후원군이 없어 결국 校尉 韩延年은 전사하고 이릉은 투항했다.

다른 형세에 힘이 다하여 십여 차례 창에 찔린 몸으로 얹지로 몇 차례 맞서 싸우다가 끝내 적의 총탄을 맞고 땅에 거꾸러짐을 면치 못하였다.”<sup>31</sup>

지사함이 적진에서 포위된 뒤에도 밤새도록 홀로 분전하다가 적탄에 맞아 전사하기까지의 경과가 눈에 선하게 묘사되어 있다. 이다음에는 홀로 남은 우웅민을 돋기 위해 이인서와 지대충이 암대(巖臺)에서 내려와 싸우다가 세 사람 모두 장렬히 전사하는 장면이 그려진다. 이 대목은 『옹암지』에서 가장 비장한 장면으로서 극적으로 그려졌는데 비해, 『호구일록』에는 “네 사람이 적탄에 맞아 먼저 거꾸러졌다.”<sup>32</sup>라고 단지 한 문장으로 간단히 언급되어 있을 뿐이다. 이처럼 『호구일록』에서는 의병들의 전투 모습에 대한 구체적인 묘사가 보이지 않는바, 이에 불만을 품고 『옹암지』에서는 이처럼 장렬한 전투 모습을 기술했을 것이다.

그런데 과연 이 대목이 정태춘이 실제로 본 바를 사실대로 기록한 것일까? 아마도 그렇지 않았을 개연성이 높다고 생각한다. 과연 이처럼 영웅적인 전투 행위가 있었다고 단언할 수 없거니와, 한밤중에 벌어진 전투 상황을 응암 위에 있던 사람들이 이처럼 상세히 목격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아마도 이 대목은 ‘사실의 서사’가 아니라 응암굴 전투에서 살아남은 이들의 기억 속에서 재구된 ‘기억의 서사’로 봄이 합당할 것이다. 이러한 ‘기억의 서사’는 실제보다 과장됨이 자연스럽기도 하고, 그 기저에는 조정으로부터 정당한 평가를 받지

31 『鷹巖誌』, 28~29쪽, “此夜三更 奉事乃與應民 潛出岩下 與賊更戰. 幾至十有餘合 爲賊所圍 不得脫 顧謂禹君曰 吾等講武十載 猶有此日 則爲國盡節之秋也. 更把長鎗 左右揮霍之際 爲中丸所折 身外無物 張空拳冒白刃 蹤踏於劍戟之中 橫行於矢石之間 傍若無人. 賊爲之却立 自歎不已. 已而東方既白 鐵騎并進 烏銃亂發 雖有兼人之勇 其於萬夫何哉? 噎! 皇天不弔 離陽城張巡之敗·浚稽山延年之亡 烏得免乎! 遂勢窮力盡 身被十餘鎗 強戰數合 終未免中丸仆地”.

32 權斗文, 『虎口日錄』, 1592년 8월 11일, “智士涵·禹應縉·李仁恕·智大忠 皆中丸先倒”.

못하는 현실에 대한 울분과 보상 심리가 작동되고 있었을 것으로 여겨진다.<sup>33</sup>

### 3. 패전과 절의

‘패전(敗戰)과 절의(節義)’(30면 7행~36면 10행)는 왜병이 상굴(上窟)에 뛰어 들어와 권두문이 부상을 입고 포로로 붙잡히고, 강소사가 절벽 아래로 몸을 던져 절개를 지키는 내용이다.

패전을 예감한 강소사가 간밤에 꾸었던 불길한 꿈 이야기를 하자, 권두문도 흥몽(凶夢)을 꾸었다고 하며 천명(天命)을 기다릴 뿐이라고 한다. 적장이 사람을 보내 말하기를 항복하면 목숨을 살려 주겠다고 하자, 강소사가 몰래 굴 안에서 허리띠를 풀어 목을 매었는데, 아들 주(駐)가 달려가 목숨을 구한다.<sup>34</sup> 이럴 즈음에 왜병이 상굴 안으로 뛰어 들어와 철퇴를 휘둘러 권두문의 오른쪽 어깨를 내려쳐 피가 샘처럼 솟아 흘렀는데, 강소사와 주가 감싸 보호하자 적병이 차마 다시 내려치지 못했다. 왜병이 권두문을 결박해 대 아래로 끌고 가자, 강소사는 “제 지아비가 앞에 있는데, 칩이 어디로 가겠습니까?”라고 하고는 뒤따르다가 몸을 날려 천 길 벼랑 아래로 떨어져 내려 자결한다. 적장도 그 뜻을 가상히 여겨 비단으로 시신을 싸서 화장해 주고, 지사함·이인서·지대충·우웅민 등의 시신 곁에도 그들의 병기를 꽂아 의기를 표창해 준다.

왜장이 권두문에게 무릎 끓기를 명령하지만 권두문은 이를 거부하며 빨리

33 정출현, 「임진왜란의 영웅을 기억하는 두 개의 방식: 사실의 기억, 또는 기억의 서사」, 『한국학보』 21(2009)에서는 임진왜란을 다룬 기록물에서 ‘사실의 기억’을 넘어서 ‘기억의 서사’가 탄생되는 과정을 고찰했다. 정출현은 이순신과 논개를 중앙 공신이 재구한 영웅과 지방 사족이 창출한 영웅으로 보면서, 그에 따른 기억의 서사가 만들어지는 경위를 면밀히 추적했다(311~327쪽).

34 『鷹巖誌』, 33쪽, “垓城別曲 英雄墮淚 河陽分手 烈士斷腸 生離死別 從古迄今 無世無之”.

죽이라고 소리친다. 적장이 암대(岩臺) 위에 올라 산세를 들러보고는 참으로 천혜의 힘지로 저들이 굳게 버티고 싸우지 않았다면 억만 군사로도 함락시 키기가 어려웠을 것이라고 한다. 왜군이 군내로 철수할 때 촌민을 모두 풀어 주고 나머지 장사는 결박해 뒤따르게 했는데, 약수(藥水) 하평(下坪)에 이르렀을 때 지대성 등 10여 명이 결박을 풀고 도주했다. 왜장이 며칠을 유숙하고 영월군에 먼저 노문(路文)을 보내고 출발할 즈음에 아전과 종들 무리를 풀어주었다. 함께 불잡힌 고언영을 친척으로 오인해 권두문 부자와 함께 원주 읍으로 옮겨 가두었다. 적장이 만방으로 꾀었지만 권두문은 끝내 복종하지 않고 탈출해 본군으로 돌아와 전투에서 패한 사유와 베어 죽인 적의 수를 대략 적은 소장을 행재소에 올린다. 권두문은 이내 군수에서 사직하고 고향 영천으로 돌아갔으며, 후에 간성(杆城) 군수를 지냈다.

이 단락은 패전해서 생포될 당시의 상황과 포로가 된 뒤에도 왜적의 회유에 굴하지 않고 끝까지 충절을 지켰음을 말하는 데 서술의 중점이 놓여 있다. 목을 매어 자결하려 한 강소사에게 권두문이 자네와 내가 전생에 무슨 악업이 있어 이러한 곤액을 당하는지 모르겠다고 위로하자, 강소사는 첨이 못난 행동을 해서 장부의 심기를 어지럽혔다고 사죄한다. 작자는 이다음에 “해하 성에서 항우가 노래 부르니, 영웅이 눈물을 흘림이요, 하수의 남쪽에서 소무와 이릉이 이별하니, 열사가 애끓을 때로다. 예로부터 지금까지 이러하지 않은 때가 없구나.”<sup>35</sup>라고 하여 문학적 윤식을 더해 독자의 감정을 고조시킨다. 이 대목은 『호구일록』에는 빠져 있고, 절벽 아래로 투신한 강소사와 왜진에서 싸우다가 죽은 지사함 등 4인에 대해 적장도 그 뜻을 가상히 여겨 화장해주고 표창했다는 내용도 들어 있지 않다.

---

35 『鷹巖誌』, 33弩, “核城別曲 英雄墜淚 河陽分手 烈士斷腸, 生離死別 從古迄今 無世無之”.



그림5-평창 응암리 응암 전경

『응암지』는 권두문 일행이 포로로 붙잡혀 원주로 이송되었는데, 권두문이 탈출해 돌아왔으며 훗날 간성 군수를 지냈다는 후일담을 덧붙이는 것으로 서사가 마무리된다. 다만 한문본 『응암지』에는 『응암지』의 저술 동기를 밝히고 응암(鷹巖)의 유래에 대해 언급한 대목이 초기(追記)되어 있음은 앞에서 살펴본 바 있다.

이상에서 『응암지』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았는데, 권두문의 『호구일록』과 비교해 볼 때 『응암지』에서 새롭게 확인되는 사실과 서사적 특징은 대략 다음과 같다. ① 왜적의 침입 소식을 접한 권두문은 애초에는 서울로 가 선조를 호종하려고 했다. 당초 왜적에 맞서 창의하고 항전을 주도한 사람은 평창 출신의 무인 지사함과 우옹민 등이었고, 권두문은 이들의 권유로 동참했다. ② 『응암지』는 왜적과의 항전 과정에서 활약한 평창 군민의 활약상을 중심으로 서술되었고, 이는 지사함·우옹민·이인서·지대명 등의 전투 모습에 대한

묘사에 잘 드러나 있다. ③『옹암지』는 실제 벌어진 사실을 단순히 기록해 전달함을 넘어서서 문학적 윤색을 통한 감동을 추구하고 있음이 여러 군데에서 확인된다. 지사함이 창의의 당위성을 역설하는 대목, 우옹민이 항전하기로 자원한 27인의 재주를 말하는 대목, 강소사가 자결하는 장면 등에서 이러한 면모가 두드러진다. 요컨대 『옹암지』는 정허춘이 직접 목격한 사실에 당시 평창 지역민에게 구전으로 전승되는 ‘기억의 서사’가 덧붙여져서 응암굴 전투의 자랑스런 역사를 부각하는 데 서사의 중심이 놓여 있다. 이는 왜적에 포로로 붙잡혔다가 탈출하기까지 겪은 경험을 매일 기록하고 자신의 충(忠)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서술한 권두문의 『호구일록』과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 서술 방식으로, 우리가 미처 모르는 1592년 8월에 벌어진 응암굴 전투의 이면을 알려 준다.

#### IV. 『호구일록』과 『옹암지』의 전승 양상

---

『호구일록』과 『옹암지』는 둘 다 응암굴 전투에 기반한 실기문학이지만 그 저술 의도와 서사 내용은 사뭇 다르다. 『호구일록』은 권두문이 왜군 진영에서 포로로 겪은 고통과 탈출에 성공하기까지의 과정을 일기 형식으로 적은 것이다. 여기에는 왜적에 맞서 싸우다가 포로로 붙잡히고 적장의 회유에 굴하지 않은 권두문의 충(忠), 포로로 붙잡히는 순간에 자결한 강소사의 절(節), 서모와 부친의 자살 시도를 막고 하늘에 빌어 비를 내리게 한 아들 주(駐)의 효(孝)가 모두 들어 있다. 조선 사회에서 가장 중시하는 충효열(忠孝烈)의 유교 윤리를 빠짐없이 지니고 있어서인지, 문집 『남천집』이 간행되기 이전부터

『호구일록』은 후인의 주목을 받았음이 확인된다.<sup>36</sup>

17세기 안동 출신의 성리학자 홍여하(洪汝河, 1620~1674)는 『호구일록』을 보고 그 감회를 읊은 두 편의 시를 남겼다.

당옹(當熊)을 배운 듯 몸으로 선뜻 칼날에 맞서더니	身輕白刃學當熊
만 길 높은 푸른 벼랑에서 훌연 몸을 던졌네.	忽墮蒼崖萬仞崇
옥 깨어지고 꽃잎 날리는 건 쉬운 일이지만	玉碎花飛容易事
막아 지킴이 하늘의 도움인 줄 누가 알았으리오.	誰知捍衛所天功
저녁 내내 허공 가득 바람과 우레 요란하더니	憑虛一夕動風雷
쇠사슬로 걸친이 잠긴 문이 또한 절로 열렸다네.	鐵鎖重關也自開
뉘라서 알리오, 하늘이 정성스런 기도에 감응해	誰識天翁感精禱
마침내 한밤중에 아비 업고 나오게 한 줄을. <sup>37</sup>	終教夜半負爺來

첫 번째 시는 권두문의 부실 강소사의 절행(節行)을 노래한 것으로 첫 구의 당옹(當熊)은 죽음을 무릅쓰고 지아비를 구한 일을 비유하는 말이다. 한(漢) 원제(元帝)가 비빈들과 같이 호권(虎圈)에 가 짐승들의 싸움을 구경하고 있는데, 곰 한 마리가 올에서 탈출해 전(殿)으로 올라왔다. 그러자 모든 비빈들이 놀라 도망갔으나, 궁녀 풍소의(馮昭儀)가 곰의 앞을 가로막아 주위 사람들이 곰을 쳐서 죽였다는 고사에서 나온 말이다. 왜병이 권두문을 칼로 내려치려

<sup>36</sup> 김진옥의 「해제」에 따르면, 『남천집』은 1864년에 榮川 鷗湖書院에서 木板으로 초간본이 간행된다.

<sup>37</sup> 『木齋集』 권2, 「題權通禮南川公虎口日錄後 幷序」. 번역은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 DB(<https://db.itkc.or.kr>)에서 제공하는 번역문을 참고해 필자가 가다듬었다.

할 때에 강소사가 몸으로 감싸 보호한 일을 비유해 말한 것이다.<sup>38</sup> 이어서 강소사가 절벽에서 몸을 던져 자결한 사실을 말하고 나서, 하늘의 도움이 있었기에 권두문이 살아남을 수 있었다고 했다. 두 번째 시는 아들 권주(權駐)의 효행(孝行)을 칭송한 것으로, 권주의 기도에 감응해 하늘이 비를 내려 무사히 탈출할 수 있었음을<sup>39</sup> 노래한 것이다.

홍여하는 이 시의 서문에서 “측실 강씨의 열(烈)이 있어 처음에 공을 감싸 안아 죽지 않을 수 있었고, 진사공(권주를 말함)의 효(孝)가 있어 마지막에 공을 탈출시켜 죽지 않을 수 있었다. 그러하니 공이 충(忠)을 온전히 함은 자못 하늘이 공을 곡진히 이루어 줄인가 보다. 비록 그렇지만 그 열과 효는 실상 공의 집안 가르침에 근본을 둔 것이니, 공이 본래 그 충을 지녔음이 더욱 징험된 것이다. 이것이 공이 하늘의 도움을 받은 까닭이 되는가 보다.”<sup>40</sup>라고 하여, 강씨의 열과 아들 주의 효가 권두문의 충에서 나온 것이라고 하면서, 이 때문에 하늘이 도운 것이라고 했다. 권주의 효와 강소사의 열 같은 행실이 결국 권두문의 충에서 유래했다고 보는 것이다.<sup>41</sup>

『호구일록』에 비해 『옹암지』는 여러 단계의 전승 과정을 거쳐 기록이 남겨지게 되었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옹암지』는 당시 통인 정허준이 목격한

38 權斗文, 『虎口日錄』, 8월 11일, “轉頭之間 賊已飛上 揮劍擊我. 康女卽趨覆吾背曰 願殺妾而存夫. 駐亦呼泣覆之.

39 權斗文, 『虎口日錄』, 9월 2일, “一倭宿體外積穀上 他直倭亦列宿於簷下. 燎火雖明 一不上見是必以雷雨之故 不疑吾等之逃出也. 景鎮曰 今此之雨 豈非昨夜令胤祝天之所感也? 至誠動天果非虛語”.

40 洪汝河, 『木齋集』 권2, “有側室康之烈 捍公於始 得不死 有進士公之孝 脫公於終 得不死. 而以全公之忠 殑天所以曲成公歟! 雖然 之烈也之孝也 實本諸公之家教 則公能有其忠益驗矣 此公所 以獲佑於天也歟!”.

41 권두문과 같은 榮川 출신으로 홍여하의 시에 차운한 朴時源(1764~1842) 또한 똑같은 지향 을 드러내고 있으나, 원문은 다음과 같다. 權斗文, 『南川集』 권4 附錄, 「謹閱虎口錄 敬次木齋洪公韻」, “蛇豕當前義取熊 落花巖壁至今崇. 魚龍不敢吞貞玉 烈氣擣天最是功. / 虔誠默禱致風雷 虎口抽身嶺路開. 死守孤城生亦義 一家忠孝有從來”.

사실을 훗날 평창 군수로 부임한 이문주가 읍지를 편찬하면서 기록했고, 이를 후손가에서 문학적으로 윤식하는 과정을 통해 생성되었을 것으로 여겨진다. 이문주가 평창 군수를 지낸 시기는 대략 17세기 중반으로 정허춘의 구술에 기반한 『응암지』의 줄거리는 이때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응암지』에서 문학적으로 윤색된 허구적 대목은 아마도 당시 의병에 참가한 후손가의 손길에서 덧붙여졌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때 주목되는 것이 평창 단양우씨 가에 남아 있는 고문서로, 여기에는 우옹민의 공훈을 인정하고 포상을 청원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정허춘이 목격한 바를 이문주가 읍지에 기록한 사실도 이 문중에 소장된 「갑신년(甲申年) 나영조(羅英祚) 등(等) 상서(上書)」를 통해 알 수 있거니와, 이 외에 관련 문서가 6점이 더 확인되는데 모두 19세기에 작성된 것이다.<sup>42</sup> 이 고문서들은 우옹민 후손가의 우중화(禹重華)·우원규(禹元規)·우창구(禹昌九) 등이 발괄[白活]·등장(等狀)·상서(上書) 등의 형식으로 평창 군수, 강원도 관찰사, 예조 등에 올린 청원서이다. 여기에는 우옹민이 지사함, 이인서와 함께 앞장서서 창의하여 항전하다가 순절한 사실을 말하고, 읍지와 권두문 후손가에 소장된 일기 등에 그 사실이 실려 있음을 강조하는 내용이 보인다. 그중에서도 우옹민이 적탄에 맞아 눈알이 튀어나왔는데 이를 손으로 떼어내고 분전하다가 전사한 사실이 여러 문서에서 언급되어 있다.<sup>43</sup> 『응암지』에는 이 장면이 “우군(禹君)의 투구가 땅에 떨어지고 날아온 화살이 얼굴에 가득 꽂혔는데, 왼쪽

42 한국학자료센터 강원권역센터에서 확인되는 평창 단양우씨 가 소장 관련 고문서는 다음과 같다. 「1824년 禹重華 白活」, 「1824년 禹重華 上書」, 「1825년 禹重華 等狀」, 「1851년 禹昌九 上書」, 「1871년 禹元規 等狀」, 「1878년 禹元規 等狀」.

43 「1824년 禹重華 白活」, “及中流丸 目睛瀉出 則以手找去 仍復力戰”; 「1824년 禹重華 上書」, “及中流丸 目睛瀉出 則以手拔去 仍復力戰”; 「1851년 禹昌九 上書」, “公爲鳥銃流丸 適中其左目 眼睛突出 則以手截去 奮力直前”; 「癸未年 羅英祚 等 上書」, “公益勵氣復戰 流丸適中左目 眼睛突出 公以手截去 裹瘡復戰”.

눈알이 튀어나옴에 손으로 끊어내고 다시 한참을 싸웠다. 또다시 총탄이 적중하고 끝내는 일어나지 못하였다.”<sup>44</sup>라고 묘사되어 있다. “튀어나온 눈알을 손으로 떼어내고 싸웠다.”라는 혼치 않은 표현이 공통으로 보이고 있거니와, 1851년 우창구의 상서(上書)에서부터 후대 문서에서는 ‘좌목(左目)’이라 하여 보다 구체적인 표현이 등장하고 있음도 흥미롭게 생각된다. 이 하나의 문구(文句)만으로 저작 연대를 추정할 수는 없겠지만, 이는 적어도 『옹암지』가 후손가에서 선조의 충렬을 선양하는 노력과 밀접히 관련되면서 문학적 윤색이 이루어졌음을 보여 주는 사례는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요컨대 『호구일록』이 충효열(忠孝烈)을 온전히 구현한 일기로 후대 사대부 문인의 관심 속에 전승되었다면, 『옹암지』는 평창 지역민이 중앙 정부로부터 선조의 충절을 인정받기 위한 활동 속에서 형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두 작품은 동일한 역사 사건 속에서 나온 실기문학이지만 기록자의 신분과 입장에 따라 그 저술 의도와 서사 내용이 사뭇 다른 면모를 지니게 된 것이다. 권두문이 자신의 포로 체험을 중심으로 기술한 『호구일록』과 달리 『옹암지』는 의병의 조직 경위와 응암굴에서 벌어진 전투의 실상을 매우 구체적으로 보여 준다. 『호구일록』이 권두문이 자신의 체험을 일기 형식으로 기록한 ‘사실의 서사’라면, 『옹암지』는 허구적 측면이 더해지며 문학적으로 윤색된 ‘기억의 서사’라고 할 수 있다. 이때 실사와 허구를 적절히 배합해 문학적 감동을 배가하고 있는 『옹암지』는 상당히 이채로운 면모의 실기문학으로 주목할 작품이라 생각된다.

---

44 『鷹巖誌』, 29弩, “禹君頤甲落地 流矢滿面 左目突出 以手截之 復戰良久 又中鐵丸 竟至不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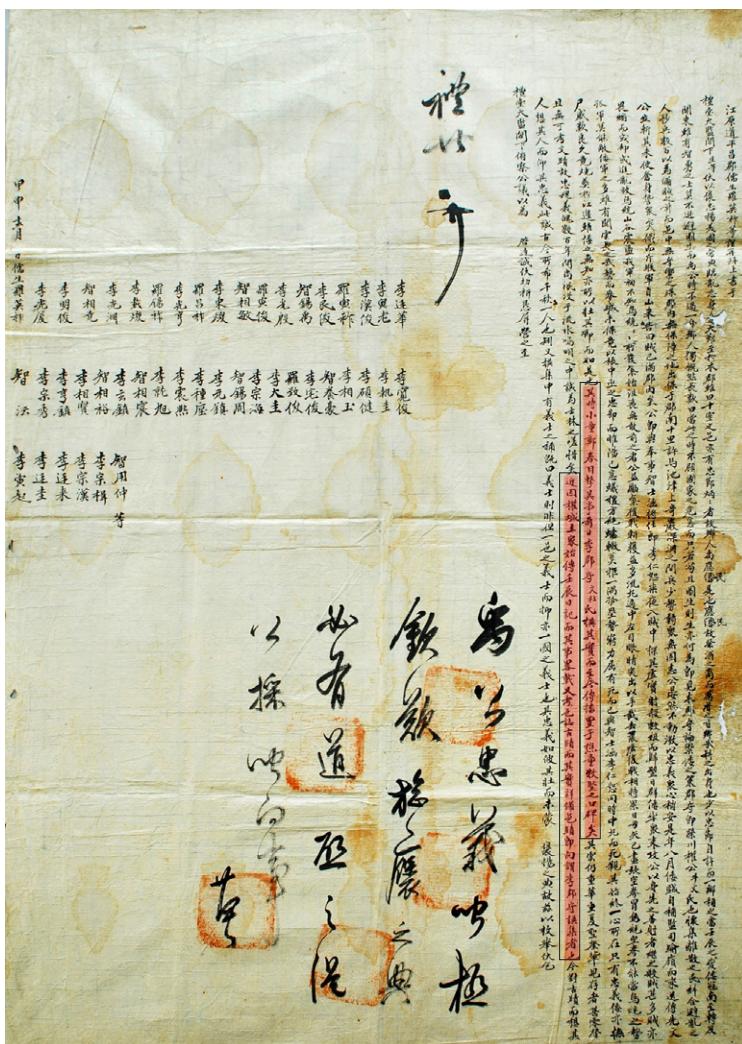


그림6-「甲申年 羅英祚 等 上書」<sup>45</sup>

45 박스로 강조한 부분에 “정허춘이 목격한 사실을 이문주가 읊지에 기록했고 권두문의 집에 관련 일기가 전한다.”라는 내용이 보인다.

## 참고문헌

### 1. 1차 자료

- 權斗文,『南川集』: 민족문화추진회(편),『한국문집총간 속집 5』, 2005.
- 洪汝河,『木齋集』: 민족문화추진회(편),『한국문집총간 124』, 1993.
- 『鷹巖誌』(한문본, 일본 교토대학 가와이문고 소장).
- 『鷹巖誌』(한글현토본, 조연형 소장).
- 韓致瀨,『海東繹史』.
- 「1824년 禹重華 白活」(평창 단양우씨 가 소장본, 한국학자료센터 강원권역센터).
- 「1824년 禹重華 上書」(평창 단양우씨 가 소장본, 한국학자료센터 강원권역센터).
- 「1825년 禹重華 等狀」(평창 단양우씨 가 소장본, 한국학자료센터 강원권역센터).
- 「1851년 禹昌九 上書」(평창 단양우씨 가 소장본, 한국학자료센터 강원권역센터).
- 「1871년 禹元規 等狀」(평창 단양우씨 가 소장본, 한국학자료센터 강원권역센터).
- 「1878년 禹元規 等狀」(평창 단양우씨 가 소장본, 한국학자료센터 강원권역센터).
- 「癸未年 羅英祚等 上書」(평창 단양우씨 가 소장본, 한국학자료센터 강원권역센터).
- 『孝宗實錄』

### 2. 논저

- 권선정·김기혁·김용상·김정인·박경호·박승규·성효현·손승호·손용택·신종원·심보경·양보경·옥한석·이기봉·이영희·전종한·정암·정부매·조영국(지), 국토지리연구원(편),『한국지명유래집 중부편』, 서울: 진한엠엔비, 2015.
- 우영길,『권두문의 「호구일록」에 나타난 忠 이념의 구현 양상』,『동양고전연구』87, 2022, 66~99쪽.
- 유몽인(지), 신익철·이형대·조웅희·노영미(역),『어우야담』, 파주: 돌베개, 2006.
- 장경남,『임란 실기의 문학적 특성 고찰』,『승실어문』11, 1998, 53~92쪽.
- 정출현,『임진왜란의 영웅을 기억하는 두 개의 방식: 사실의 기억, 또는 기억의 서사』,『한문학보』21, 2009, 295~332쪽.
- 평창군 문화공보실(편),『평창군지』, 서울: 삼화출판사, 1979.
- 한의승,『남천 권두문의 「호구일록」을 통해 본 유교이념의 가족윤리 전유 양상과 의미』,『영남학』69, 2019, 153~178쪽.

### 3. 기타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DB(<https://db.itkc.or.kr>).

<1872년지방지도(평창군 오면 지도) 응암굴 일대>, 네이버 지식백과,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765757&cid=43740&categoryId=44178>.

## 국문초록

『호구일록(虎口日錄)』과 『옹암지(鷹巖誌)』는 모두 1592년에 벌어진 평창 응암굴 전투를 배경으로 한 실기문학이다. 하나의 사건을 배경으로 서로 다른 기록이 산출된 것인데, 그 서사적 지향점은 전혀 다르다. 동일한 역사 사실에서 유래한 실기가 이처럼 상이한 면모를 지니고 있음은 흔치 않은 경우인데, 이 글에서는 그 원인을 살펴보고자 했다. 이에 이 글에서는 『호구일록』과 『옹암지』의 선후 관계, 창작 배경을 살펴 저술 의도를 확인했고, 『호구일록』과 다른 『옹암지』의 서사적 특징을 밝혔다.

『호구일록』은 권두문(權斗文)이 왜군에게 포로로 붙잡혀 있을 때의 생활과 탈출 과정을 일기 형식으로 적은 것으로, 권두문의 충(忠), 부실(副室) 강소사(姜小舍)의 절(節), 아들 권주(權駐)의 효(孝)가 모두 드러난다. 『옹암지』는 당시 통인 정허춘(鄭虛春)이 목격한 사실을 후날 평창 군수로 부임한 이문주(李文柱)가 읍지(邑誌)를 편찬하면서 기록했고, 이를 후손가에서 문학적으로 윤색하는 과정을 통해 생성되었다. 『호구일록』이 충효열(忠孝烈)을 온전히 구현한 일기로 후대 사대부 문인의 관심 속에 전승되었다면, 『옹암지』는 평창 지역민이 중앙 정부로부터 선조의 충절을 인정받기 위한 활동 속에서 형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동일한 사건을 배경으로 탄생한 실기문학이지만, 기록자의 신분과 입장에 따라 저술 의도와 서사 내용이 사뭇 달라진 것이다. 『호구일록』이 권두문의 개인적 체험을 일기 형식으로 기록한 ‘사실의 서사’라면, 『옹암지』는 문학적 허구로 윤색된 ‘기억의 서사’로 대비할 수 있다. 『옹암지』는 실사와 허구가 적절히 배합되어 탄생한 점에서 상당히 이색적인 실기문학으로 주목할 필요가 있다.

투고일 2024. 9. 10.

심사일 2024. 10. 28.

제재 확정일 2024. 11. 19.

주제어(keywords) 『호구일록』(虎口日錄, *Hoguilrok*), 『옹암지』(鷹巖誌, *Eungamji*), 실기문학 (Silki literature), 권두문 (Gwon Dumun), 평창 응암굴 (Eungam Cave in Pyeongchang)

## Abstract

Two Layers of Records and Tradition in Silki Literature as Seen through  
*Hoguilrok* (虎口日錄) and *Eungamji* (鷹巖誌)

Shin, Ikcheol

*Hoguilrok* (虎口日錄) and *Eungamji* (鷹巖誌) are examples of Silki Literature, which is based on the 1592 Battle of Eungam Cave in Pyeongchang. Although both works stem from the same event, they present distinctly different narratives. The divergence in the narrative focus despite their common historical background is an unusual case. This study explores the reasons behind these differences. By examining the chronological relationship and background of their creation, this study clarifies the authors' respective intentions and highlights the unique narrative characteristics of *Eungamji* compared to *Hoguilrok*.

*Hoguilrok* is a diary-style record of Gwon Dumun's (權斗文) life as a prisoner of war and his eventual escape. The work reflects the loyalty (忠) of Gwon Dumun, the chastity (節) of his concubine Kang Sosa (姜小史), and the filial duty (孝) of his son Gwon Ju(權駐). By contrast, *Eungamji* is believed to have originated from the observations of Jeong Heochun (鄭虛春), who was a servant who experienced the events. Lee Munju (李文柱), who served as the magistrate of Pyeongchang, later recorded this account and their descendants subsequently refined it into a literary work. In this regard, *Hoguilrok* can be viewed as a diary that faithfully preserves the virtues of loyalty, filial duty, and chastity, passed down with the interest of Confucian scholars. By contrast, *Eungamji* appears to have been shaped by the efforts of local residents seeking recognition from the central government for their ancestors' loyalty. Although both works are silki literature based on the same event, the differing social status and perspectives of the authors has resulted in distinct narrative intentions and content. *Hoguilrok* can be considered a "narrative of fact" based on Gwon Dumun's personal experiences, while *Eungamji* is a "narrative of memory," which is embellished with literary fiction. The combination of fact and fiction in *Eungamji* makes the work a unique example of practical literature that warrants special attention.